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2017(APBC 2017)' 국가대표팀 대 넥센 히어로즈의 연습 경기. 4-2로 승리를 거둔 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운명의 한 · 일전이 펼쳐진다

### 오늘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도쿄돔서 개최... 한국-일본 격돌

한국 야구대표팀은 16일 도쿄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에서 일본과 일전을 치른다. 넥센 히어로즈 경질청과의 연습경기 통해 경기 감각을 조절한 한국은 14일 일본에 도전했다. 컨디션 점검하면서 일본전에 대비하고 있다.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은 아시아 야구의 발전과 교류를 통해 야구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KBO, NPB, CPBL 등 아시아 3개 프로야구 기구가 함께하는 신규 국가 대항전이다. 참가 자격은 24세 이하(2017 대회 기준 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 또는 프로 입단 3년차 이하의 선수로 제한된다. 제한 규정과 별도로 3명의 와일드 카드를 뽑을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보다 경험이다. 우승을 한다면 좋겠지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젊은 선수들에게 큰 무대 경험을 쌓게 해준다는 계획이다. 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와일드 카드를 선발하지 않은 이유다. 일본과 대만은 와일드카드 3장을 모두 뽑아 전력을 극대화했다. 전반적인 전력은 일본이 앞선다. 일본은 한국전에 대비해 수준급 선수들을 발탁했다. 10승 이상 올린 투수들도 있고 150km 이상 던지는 투수도 준비했다. 2년 전 '프리미어 12' 준결승에서 한국에 패한 것을 설욕한다고 버르는 분위기가.

일본 야구의 심장 도쿄돔에서 한국을 제압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임기영, 함덕주 등 수준급 투수들을 데려갔고 이정후, 박민우, 구자욱 등 정상급 타자들이 타도 일본을 의치고 있다. 선동열 감독 역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대라며 최상의 카드로 일본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2위로 결승 무대에 오르는 것보다 일본을 힘 대 힘으로 누르겠다는 각오다. 한국은 16일 저녁 7시 도쿄돔에서 일본과 맞대결한다. 17일에는 대만과 두 번째 예선전을 치른다. 대표팀이 예선 1위 또는 2위에 오를 경우 19일 오후 6시 결승 무대에 오른다.

/뉴시스

##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19일 개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등재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유적이 있는 청정 고창을 배경으로 열리는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오는 19일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마라톤 주로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43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접수를 마친 가운데, 고창군은 대회 준비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는 올해 15회째 개최되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코스인 전국의 마라토너들로부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참가한 일본의

도쿄 유메마이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이번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많은 마라토너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 8일 이길수 부군수 주재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 16개 분야 등 점검을 마쳤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모집, 마라톤 코스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교통 통제 대책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마라토너뿐만 아니라 동반하는 가족을 맞이할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대회 당일인 19일에는 고창고인돌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인의 분향 고창국회축제'의 마

지막 날이자 선운산도립공원과 문수산 등 주요 명소에서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경기종료 후 선수들과 방문객들에게 추억도 가득 담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행사 당일 마라톤 주로에 포함되는 고창읍, 아산면, 부안면 소재 일부도로의 교통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군민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고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이 일품인 고창군 일원을 달리는 이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대회가 되도록 남은 기간 대회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쌍두마차' 심석희 · 최민정

심석희(21·한체대)와 최민정(20·성남시청)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쌍두마차다. 한 살 차이 언니동생 두 선수의 질주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은 물론 한국 선수단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심석희와 최민정은 9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패조의 컨디션을 뺀내고 있다. 시작은 최민정이 끊었다. 최민정은 1차대회에서 개인종목인 500m, 1000m, 1500m는 물론 동료들과 함께 나선 3000m 계주에서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며 전 종목 1위의 기업을 토했다. 1차대회에서 침묵한 심석희는 2차대회 1000m 금메달로 감각을 끌어올리더니 3차대회에서는 최민정을 밀어내고 1500m 패권까지 거머쥐었다. 두 선수의 목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다. 호흡을 맞추는 계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에서는 서로를 넘어야 이룰 수 있는 꿈이다. 신경이 쓰일 법도 하지만 두 선수는 라이벌의 존재가 오히려 힘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오른쪽)와 최민정(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4차대회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심석희는 15일 목동실내빙상장 미디어데이에 "서로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어서 좋다. 민정이 동생이지만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배우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최민정은 "석희 언니랑 대표팀 첫 시즌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다. 언니가 경험이 많아 보고 배우면서 탄다"고 화답했다. 두 선수는 16일 같은 장소에서 개막하는 월드컵 4차대회에서 다시 한 번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이번 대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치러지는 마지막 월드컵이다.

모처럼 국내팬들 앞에서 기량을 뽐낼 기회이기도 하다. 최민정은 "월드컵 시리즈는 올림픽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월드컵을 통해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림픽에 맞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경기를 하게 되니 더 좋은 것 같다"며 웃었다. 심석희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회여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만큼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 한화, 미국 출신 좌완 제이슨 윌러 영입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2018 시즌 외국인 투수로 미국 출신의 좌완 제이슨 윌러(27)를 영입했다. 제이슨 윌러는 계약금 10만달러, 연봉 47만5000달러 등 총 57만5000달러에 사인했다. 한화는 "건장하고 젊은 선발투수라는 확실한 외국인 투수 영입기준을 마련, 이에 부합하는 선수들을 지켜봤다. 그 결과 지난 12일 영입한 커버스 샌슨에 이어 제이슨 윌러까지 외국인

투수진 영입을 마무리했다. 윌러는 신장 198cm 체중 116kg의 우수한 신체조건과 안정된 제구력을 갖춘 투수다. 평균 구속 140km 중반의 포심에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구사가 가능하다. 마이너리그 157경기 중 146경기 선발투수로 출장, 800이닝을 던지면서 삼진율 61.9% 잡아내는 동안 볼넷은 241개만 허용했다.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히 선발투수로 활약해 56승4패, 평균자책점 3.74를 기록했다. 올해 5월30일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경기를 볼펜으로 뛰었다. 한화는 "이닝 소화 능력이 기대되는 외국인 투수 영입을 마무리해 내년 시즌 팀 투수진 전력 구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 kt 위즈, 로하스 주니어 총액 100만 달러 재계약 체결

kt 위즈가 메이저리그 도전 의지를 드러냈던 외국인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27)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kt는 올 시즌 함께 한 외국인 타자 로하스 주니어와 총액 100만 달러에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즌이 끝난 뒤 부친의 고향인 도미니카공화국에 머물고 있는 로하스는 kt의 재계약 제의를 받았다. 메이저리그 도전 의지가 강했던 로하스는 빅리그 진출과 kt 잔류를 놓고 고민 끝에 KBO리그를 선택했다. 지난 6월 조니 모넬의 대체 외국인 타자로 팀에 합류한 로하스는 중견수로서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외야수비의 리더 노릇을 하며 적응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공수에서 활약했다. 8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1(336타수 101안타) 18홈런 56타점 52득점 5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911을 기록하며 타선의 중심을 잡았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